

# ‘전북 세계유산’ 초등 교과서 수록

### 도내 초등 4년 ‘함께 사는 전라북도’ 내년 판에... 체험활동·자긍심 고취 효과 기대

고창 고인돌과 진안 매사냥, 전북농악, 판소리 등 전북지역 세계유산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해 전라북도 세계유산을 도내 초등학교 4학년이 배우는 ‘함께 사는 전라북도’ 내년도 교과서에 수록하기로 했다.

현재 전북도는 고창 고인돌과 판소리, 매사냥, 농악, 익산백제역사유적지구 등 5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전북도에서 제공하게 될 교과서 수록 자료 중 ‘고창 고인돌’ 유적은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을 접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곳으로 그 가치와 형식 등에 대한 설명과 고창 고인돌 박물관 및 죽림선사마을 체험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초등학생의 학습 체험 안내에 도움이 되게 구성 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는 전북도가 판소리의 역사 속에서 수행한 역할과 판소리의 본고장으로서 전주 대사습놀이, 전주세계소리축제, 남원국립민속국악원, 고창 판소리 박물관, 남원 운봉 ‘국악의 성지’ 시설 소개 및 판소리에 대한 설명을 했다.

‘매사냥’은 수천년 동안 이어온 그 유래와 현재 국내 유일하게 남아 있는 보유자 2명 중 1명인 진안 박정오 등(전북 무형문화재 20호)에 대한 소개와 매사냥 홍보, 체험관 운영에 대한 소개에 중점을 뒀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전북농악’은 한국농악 유네스코 등재 목록



중소기업 금융부담 경감 특례보증 협약식 23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은행 임용택 행장,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최용구 본부장,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홍용웅 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 금융부담 경감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도내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며, 지원규모는 총300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이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30건 중 전북농악이 7건이 등록돼 있으며, 교과서에는 전북농악의 상징성과 호남 우도농악과 좌도농악을 비교 설명했으며, 입실 필경문화촌의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해 학생들이 체험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도 교육청(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도내 초등 4학년 지역교과서 편찬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7월부터 편찬 작업에 착수 연말에 교과서를 발

행하게 된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에 세계문화유산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지역화 교과서(익산의 생활, 전라북도의 생활)에 수록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7월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후 교육청 간담회 및 협의를 통해 도내 초등학교 4학년이 배우는 ‘전라북도의 생활’에 수록됐다. 전북도는 고창 고인돌은 ‘고창의 생활’, 매사냥은 ‘진안의 생활’ 등 유네

스코 등재 유산이 시군 지역화 교과서에도 수록될 수 있도록 시군과 공조 협조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에 전북지역 세계유산 수록으로 초등학생의 세계유산 체험활동 및 자긍심 고취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 수록과 학생들의 세계유산 체험활동을 위해 시·군 및 도교육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대선 후보자 TV토론회 국민질문 공모

전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와 관련해 후보자에 대한 국민 질문을 공모한다.

공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중앙선방위 홈페이지(www.debates.go.kr)와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등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 기한은 3차례 개최하는 토론회 일정에 따라 정치분야(1차 토론회) 4월16일, 경제분야(2차 토

론회) 4월23일, 사회분야(3차 토론회) 4월27일까지다.

가장 많이 접수된 공통 질문 중 일부를 골라 TV토론회에서 후보자에게 직접 물으며 공모 참가자 중 5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권도 제공한다.

또한, ‘후보자 TV토론 모니터단’을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기타 사항은 중앙선방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 도, B형 인플루엔자 감염 주의 당부

전북도는 영·유아 및 학생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의사(유사증상)환자분율과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리가 증가하고 있어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보육시설·학교 등에서 올바른 보건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평상시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

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인플루엔자로 진단되면 의사의 적절한 처방에 가정에서 휴식을 취한 후,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을 때까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할 바

## 도, 중소 탄소기업 기술 사업화 지원

### 4개 사업에 6억원

전북도는 중소 탄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과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를 통해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탄소산업 활성화 T2B(Tech to Biz)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T2B 사업은 탄소기업의 수요공급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화 촉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마케팅 지원, 성공모델 발굴 확산 등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5년간 국도비 38억원을 투입하며, 올해는 탄소기업 대상 4

개 사업에 6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의 핵심은 도내 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을 최종 수요기업과 연계시켜 기술과 제품이 온오프라인 시연장을 통해 거래되도록 상시 수요공급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내 대표 중소기업 53개사가 보유한 우수한 특허 기술 등에 대한 DB를 구축해 온라인 시연장을 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기업과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연계를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영문사이트를 구축해 본격적인 국내외 탄소기술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 박우정 고창군수 재산, 단체장 중 가장 많아

### 도내 공직자 신고, 최다 전주시 이기동 의원 77억... 최저 임실군 김왕중 의원 3억

송하진 지사와 황현 도의장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7년 정기재산변동 신고 현황’에 따르면 송하진 지사의 올해 재산 신고액은 약 13억8,2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재산 신고액보다 약 1억4,7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송 지사의 재산이 증가한 것은 아파트와 토지 공시가격 상승과 급여저축·이자 등으로 예금이 증가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또 황현 도의회 의장도 지난해보다 약 9,900만원이 늘어난 2억7,700만원

가량을 신고했다. 이외 도내 13개 시·군 단체장 중 정현을 익산시장과 심민 임실군수, 박우정 고창군수를 제외한 모든 단체장 재산도 증가했으며, 재산 총액이 가장 많은 단체장은 박우정 고창군수로 약 73억원이다.

그러나 이건설 김제시장은 신고유예로 정기 재산공개에서 제외됐다.

한편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도 관할 공개대상자 198명에 대한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사항을 23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전북도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3명과 시·군의회 의원 195명 등 총 198명이다.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5억 4,540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5억 2,327만 원 보다 약 2,213만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198명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최다 신고자는 전주시 이기동 의원으로 총 76억 7,248만 원을 신고했고, 다음으로 정읍시 이복형 의원 56억 3,497만 원, 정읍시 김철수 의원 44억 6,457만 원 순이다.

최저 신고자는 마인스 3억 2,361

만원을 신고한 임실군 김왕중 의원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 내역에 대해서 6월말까지 정밀하게 심사를 마무리하고,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용준 감사관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재산 취득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은 전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 도내 유관기관, 세계잼버리 유치 적극 나서

도내 유관기관이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 유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유관기관은 23일 전주 한옥마을에 모여 한 국스카우트 회원 가입식을 가지고 회원 증서를 수여 받았다.

이날 가입식은 2023세계잼버리 개최지 결정까지 5개월도 안남은 상황에서 도내 유관기관들이 공동 회원가입

을 통해 한마음으로 역량을 모아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병욱 새만금환경경정장을 비롯해 김승수 전주시장, 김락현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이형택 전주시방검찰청 차장검사, 김규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백치훈 국정원전북지부 정보처장, 김완중 익산국토관리청장 등 전북도내 유관기관 14명이 스카우트 회원으로 가입했다. /인재용 기자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